오전 근무를 하고 나면 피곤함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고기는 비싸기도 하고, 냄새가 베여 오후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등등의 이유로 접근성이 낮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이유를 이겨내고 맛있는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회사 주변에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식당은 '늘봄숯불갈비' 입니다.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 드릴게요.

① 회사 바로 앞이지만 유명세가 부족(?)하여 널널한 자리
저희 회사 식당을 공사하면서 많은 직원분들께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 외부로 이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안그래도 많지 않은 식당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 항상 줄을 서야 하고 음식 준비까지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봄숯불갈비'는 다릅니다! 인지도가 낮은 덕분(?)에 우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1시30분부터 1시 사이 언제 가도 항상 자리가 있고, 게다가 테이블 간격도 멀리 떨어져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 받지 않고 쾌적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고기를 먹지만 합리적인 가성비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하면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한 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늘봄숯불갈비'는 점심 고기 세트로 15,000원이라는 접근성 높은 가격으로 숯불갈비를 구워먹을 수 있답니다! 고기만 나오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넉넉한 고기에 밥 한공기, 다양한 반찬 그리고 된장찌개까지 함께 제공되어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 어느때보다 푸짐하게 먹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답니다.

③ 깔끔한 분위기와 냄새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기를 굽다보면 냄새가 날 수 밖에 없고 이 냄새는 몸에 베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등 오후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제공하고는 합니다.
늘봄숯불갈비에서 점심을 먹은 제 경험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왔는지 아무도 모르더라구요? 너무 신기함에 이유를 좀 생각해보니 우선 식당의 공간이 넓고 테이블 간격이 넓어 환기가 잘 된다는 점, 고기를 구울 때 가운데 흡입기구의 성능이 매우 좋은 점 등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을 다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겠죠? 숯불에 고기를 굽는데 맛이야 말해 뭐할까요? 가격 대비 고기의 질도 너무 좋고, 집밥이 생각나는 다양한 반찬도 제공해주고 깔끔한 된장찌개도 함께 먹으면 점심 한끼 뚝딱 어렵지 않답니다.

이 소개로 양재사옥 직원분들께서도 한번 씩 '늘봄숯불갈비'를 방문하시어 식사 해보시고 저와 비슷한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늘봄숯불갈비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사진]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내부 사진]

[식사 사진]

본 문서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정보자산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받습니다.